제7장

한국 실학 연구

오진솔 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한국 학계에서 발표한 한국 실학 연구성과를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1]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실학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여러 학자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인물에 대한 분류가 문제가 되는데, 특정 인물에 대해 어떤 학자는 그를 실학자로, 다른 학자는 일반 유학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실학 연구성과의 검토 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인물별로 연구동향을 파악할 때, 기존 발행한 『한국 유교 문화 레포트』의 분류대로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정약용, 최한기, 기타 등의 여섯 가지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학계에서 실학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 및 실학 학파(중농학파-성호학파, 중상학파-북학파)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특정 인물이 한국학계에서 다년간 그리고 다수의 학자에 의해 실학자로 연구되었을 때만 기타 분류에 포함하였다.

주제별 분석에서는 경학, 철학, 정치경제, 기타로 주제를 분류하였다. 실학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성과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본보고서에서는 실학자와 관련 있어도 유교와 거리가 있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115편)과 박사 학위논문(7편) 총 122편을 분석 범주에 넣었다.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범주를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한국실학 관련 논문 수는 증가하였다. 2017년 『한국 유교 문화 레포트』에서는

1 이 보고서는 오진솔, 하한솔이 함께 집필하였다.

한국실학논문 58편을 다루었고, 2018년에 『한국 유교 문화 레포트』에서는 96편의 논문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실학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인물별 분류

본 보고서는 한국 실학의 인물 범주를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정약용, 최한기, 기타로 설정하였다. 정약용의 경우 성호학파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한국 실학 연구에서 정약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별도의 인물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로 한국 실학 관련 학술지 논문과 박사 학위 논문을 분류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유형원에 대한 논문이 2편, 성호학파 관련 14편, 북학파 관련 17편, 정약용 관련 60편, 최한기 관련 10편, 기타 인물에 대한 논문이 10편이 발표되었다. 매년 다른 인물보다 정약용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2019년에는 특히 정약용 관련 논문 수가 한국 실학 관련 전체논문 수의 절반을 넘었다.

1) 유형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史叢 9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	박인호	『반계수록』〈고설〉을 통해 본 유형원의 실학적 경세사관	韓國史學史學報 40	한국사학사학회

반계 유형원에 대한 논문은 2018년 10편, 2019년 6편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에는 단 2편만 발표되었다. 그동안 유형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형원의 개혁론을 다루어 왔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 2편의 내용 또한 유형원의 개혁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형원의 개혁론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된 상황에서 2019년에 유형원에 대한 연구논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발표된 유형원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박인호의 「『반계수록』〈고설〉을 통해 본 유형원의 실학적 경세사관」은 그동안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유서류로 간주되었던 『반계수록』〈고설(攷說)〉의 경세적 의의를 밝혀내었다. 박인호는 〈고설〉이 단순히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송양섭의 「반계 유형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운영방안」은 유형원의 인사개혁론에 대해 현대 합리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기존 연구자들을 비판한다. 송양섭은 조선시대의 이상국가론에 부합하는 유형원의 인사개혁론을 久任, 포폄제 개선, 지방관직 강조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2) 성호학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지형	안정복安鼎福의「천학문답天學問答」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反西學的 인식의 확산—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의「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	장호성	李瀷의 『百諺解』 연구-새로 발견된 자료를 中心으로 原形 復元을 시도하며-	동방한문학회 79	동방한문학회
3	이규완	3원적 사유구조-원효 『기신론』 주석과 이익의 『사칠신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3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4	박진아	18세기 조선, 錦帶 李家煥 서학 수용의 인식론적 기반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5	도민재	성호 이익(星湖 李瀷)의 「제식(祭式)」을 통해 본 실용적 제례관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6	김병애	「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7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사칠동이변(四七同異辯)』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8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사)율곡학회
9	왕초(王超)	河濱愼後聃對老莊之評價-以『八家總評·道家類』爲中心	중국학보 87	한국중국학회
10	신주현	「정약종(丁若鍾)의 『쥬교요지』에서 불교 비판 담론이 갖는 사상사적 함의 」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11	이동화	18세기 전반 이익(李瀷)의 붕당론과 정치질서 구상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12	김문식	星湖 李瀷의 역사 만들기-李孟休 저작의 소개와 활용-	한국사학사학보 40	한국사학사학회
13	구만옥	貞山 李秉休(1710-1776)의 학문관과 천문역산학 담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14	김형호	『星湖僿說』과 明·淸代 인용 문헌과 그 의미	漢文學報 41	우리한문학회

성호학파에 관한 논문은 2017년 7편, 2018년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에는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성호 이

익에 관한 논문이 6편, 친족(이가환, 이병휴, 이맹휴)에 관한 논문이 3편 발표되었다(성호 이익에 관한 논문과 중복 1편). 또한 이익의 제자였던 순암 안정복에 관한 논문이 1편, 하빈 신후담에 관한 논문이 4편 발표되었다. 정약종에 대한 논문도 1편 발표되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성과 중에서는 성호 이익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다. 또한, 성호학파 경학 연구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하빈 신후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 연구성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 발표된 성호학파 관련 연구논문은 논문의 주제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전년도에는 성호학파의 경학 혹은 서학 관련 논문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올해는 경학 연구의 비중이 줄었고, 사단칠정론이나 불교 비판과 같은 유학 사상을 다루는 주제의 논문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에 발표된 성호학파 관련 주요논문을 살펴보면, 성호학파의 경학에 대해서 김병애의 「「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周易折中』 논변」을 주목해볼만 하다. 김병애는 이광지의 『주역절중』에 대한 신후담의 「절중의례」의 내용과 하빈이 성호와 다른 성호문인들과 교류한 내용을 분석한 뒤 이에 근거하여 신후담의 역학관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김병애는 신후담이 주희의 괘변설 비판을 답습하지 않고, 여러 역학적 근거를 들어 특색있는 주역관을 구축했음을 보여주었다. 성호학파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이동화의 「18세기 전반 이익(李瀷)의 붕당론과 정치질서 구상」가 발표되었다. 기존 성호 붕당론 연구자들은 성호가 당시 탕평론이 소인과 군주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동화의 논문은 기존에 밝혀진 사실에서 더 나아가 성호 붕당론 내 군주-재상

권 문제를 주자학적 맥락을 통해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서근식의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사칠동이변(四七同異辯)』에 관한 연구」는 성호학파의 사칠론을 밝히는 논문이다. 최근 성호학파의 성리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근식의 논문도 그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근식은 신후담의 『사칠동이변』에 나타난 사단칠정론을 분석하고, 신후담이 리(理) 개념을 세분화함으로써 성리학적 형이상학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으나 온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을 논설하였다.

3) 북학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수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나타난 배움의 의미 검토	교육사상연구 33-2	한국교육사상학회
2	최식	『熱河日記』에 비친 홍대용의 그림자	대동한문학 59	대동한문학회
3	김은영	'인물성동론'에서'인물동론'으로-연암 인물성동론의 재조명-	동방학지 186	국학연구원
4	조창록	徐命膺의 농업·일용 관련 저술과 『林園經濟志』로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회 78	동방한문학회
5	최식	洪大容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동방한문학회 79	동방한문학회
6	한종완	『유림외사』와 연암소설의 지식인 형상 비교	동아인문학 48	동아인문학회
7	박수밀	燕巖 문학 연구의 새로운 향방	동양한문학연구 53	동양한문학회
8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II)-秋史 金正喜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3	한국고전번역원
9	김경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양상과 그 의미—李德懋와 俞漢雋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0	임명걸	영재(泠齋) 유득공(柳得恭)의 해양(해양국가)에 대한 인식 연구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최종성	서유구의 양전법의 수학적 고찰-구일집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0	역사실학회
12	홍성민	유배(流配)에서 자적(自適)으로-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무아의 경계-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13	심의용	홍대용(洪大容)의 天涯知己와 근대성 고찰	인문사회21 3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4	곽혜성	담헌 홍대용의 탈성리학적 사상의 형성-理氣心性論에 따른 物의 談論 변화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5	김일환	콘텐츠로서의 북학파(北學派)	韓國古典硏究 46	한국고전연구학회
16	최식	『熱河日記』와 法古刱新의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17	김은영	연암 박지원의 후생(厚生)철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북학파에 관한 논문은 2017년 6편, 2018년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에는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세부 인물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박지원과 관련된 논문이 7편(홍대용에 관한 논문과 중복 1편), 홍대용 관련 4편, 김정희 관련 2편, 이덕무 관련 1편, 유득공 관련 1편, 서명응 관련 1편, 서유구 관련 1편, 북학파 일반에 관한 논문 1편 등이 있다. 이전 년도 연구성과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학파로 분류되는 많은 인물 중에서 박지원과 홍대용에 대한 논문이 특히 많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학파 학자 중 연암 박지원은 철학 저술보다는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그의 연행기인 『열하일기』의 한문학적 의의가 있다. 이 때문인지 박지원 관련 논문 대부분은 『열하일기』를 분석하며, 박지원의 사상에 대해서 깊이 분석한 논문이 많지 않다. 김은영의 박사학위논문(「연암 박지원의 후생(厚生)철학」)과 「'인물성동론'에서'인물동론'으로-연

암 인물성동론의 재조명-」는 박지원의 사상을 분석한 논문이기에 주목해볼 만하다. 김은영은 박지원의 문학작품에서 그의 사상을 탐구하였다. 김은영은 박지원이 생(生)을 강조하고 있으며, 박지원이 인(人)과 물(物)의 동등함을 주장할 때에도 성(性)이 아닌 생(生)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주장하였다. 논문 구성에 엄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문학적 내용을 사상적 내용으로 바꾸어 성리학 논의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있다.

4) 정약용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현	유가의 마음 치유술과 그 현대적 의미-다산 정약용의 『심경밀험(心經密驗)』을 중심으로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2	임헌규	『논어』의 義·利와 그 註釋에 대한 일고찰-新·古注와茶山 丁若鏞의 주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3	최정락	다산 정약용의 도덕실천론 연구-인간과 상제의 감응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4	방인	다산 역학에서 우연성 결정론 자유의지의 문제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5	엄국화	'서(恕)' 해석의 발전과정과 기독교 윤리에 관한 고찰-정약용의 추서(推恕)와 관련하여	기독교사회윤리 45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6	김선희	인체 이론과 심 이론의 통합과 분리-『의령』에서 『맹자요의』까지 서학을 통한 다산의 인간 이해의 변화	다산학 34	다산학술문화재단
7	르엉 미 번	정약용의 『상서尙書』, 「홍범洪範」편 이해	다산학 34	다산학술문화재단
8	장위에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관점에서 본 다산의 『주역周易』 사상	다산학 34	다산학술문화재단
9	리밍 훼이	從丁茶山對孟子心性論的詮釋看其四端七情論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10	리창란	茶山《孟子要義》身体观，政治学架构和引据资料三题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방인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우주발생론적 관념과 마테오 리치의 영향-창조론과 생성론의 절충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12	임부연	정약용의 영체학靈體學과 맹자 심학心學의 재해석-도심道心의 행사行事를 중심으로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정재현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와 관련해서 본 다산 철학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14	차이 전펑	由《孟子要義》論丁茶山對朱子學的重新定位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15	홍유빈	茶山·舫山 詩經說이 지닌 복고적 성격과 그 경학사적 의미-「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대 동 한 문 학 60	대동한문학회
16	민수연	정약용의 격치육조론(格致六條論)	도덕교육연구 31-2	한국도덕교육학회
17	임헌규	공자의 정치이념 : 다산 정약용의 '정명' 해석	동방학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8	이기원	다산학에서의 예법과 인간-『소학지언』과 『심경밀험』을 중심으로	동방학 4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	최윤오	다산 정약용의 土地公槪念과 閭田制	동방학지 18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	고남식	茶山 實學사상과 조선말기 姜甑山사상의 비교-실학적 전통회귀와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3	동아시아고대학회
21	이종우	Zhu Xi's Perspective on Origin of Evil and Jeong Yakyong's Criticism of the Theory	동양문화연구 31	동양문화연구원
22	이난숙	정약용과 주희, 소옹의 『주역』 數理說의 상관적 특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23	고승환	정약용의 철학에서 인간사에 개입하는 '상제' 분석-개인 윤리와 정치 영역과 관련해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24	김현미	유학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중용(中庸)』의 현대적 해석 방향 모색-주희(朱熹)와 정약용(丁若鏞)의 해석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25	김경희	『孟子』 "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 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26	박찬호	茶山의 鬼神論에 대한 고찰-『中庸講義補』·『中庸自箴』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4	동양한문학회
27	윤석호	丁若鏞 鄕遂論의 추이와 그 함의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8	임부연	다산 정약용의 '천리(天理)' 관념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	박병철, 주인석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개혁 정치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13-2	한국민족사상학회
30	박소현	『欽欽新書』와 법의 서술-『欽欽新書·批詳雋抄』의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사림 69	수선사학회
31	박찬호	다산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32	전성건	하곡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33	김태환	민주공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茶山 丁若鏞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34	김태영	정약용의 천주교 수용과 개혁 사상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35	박상휘	조선후기 비왜론의 전개양상	열상고전연구 67	열상고전연구회
36	박광철	다산 상제관의 경세론적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37	안승우	예(禮)의 관점에서 본 다산(茶山)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38	양양	戴震與丁若鏞的人性論比較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78	한국유교학회
39	르엉 미 번	정치는 무위(無爲)인가 유위(有爲)인가?-정약용과 레뀌돈의 관점 비교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0	심순옥	정조와 다산 경학연구의 이론적 차이 고찰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1	장복동	정약용의 복수의 윤리-법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2	이난숙	정약용의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 고찰 Ⅰ	율곡학연구 40	율곡학회
43	윤석호	丁若鏞의 三代 田賦論:三代 '二元的 田賦論'의 논정 과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44	김경수	다산 정약용의 민권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철학사상 7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45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禮개념 주석에 대한 일고찰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6	이해임, 허남진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성선설(性善說)-다산(茶山)의 『맹자(孟子)』 해석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7	차서연	상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丁若鏞)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상(喪服商)」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8	정해왕	朱熹와 王守仁과 丁若鏞의 [大學] 해석 비교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9	김형빈, 이승원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협치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4-3	한국부패학회
50	조성을	정약용의 역사의식과 개혁사상	韓國史學史學報 40	한국사학사학회
51	김영욱	정약용의 구고원류	한국수학사학회지 32-3	한국수학사학회
52	정일균	茶山 丁若鏞의 '知識'論에 대한 一考察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53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의 오성(五聲) 및 악기론의 음악적 및 수리적 결함	한국음악연구 65	한국국악학회
54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箋)』 「시괘전(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55	지준호	다산 정약용의 도덕교육론-도덕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한국철학사연구회
56	김조영	丁茶山의 『孟子要義』訓詁 硏究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57	윤해린	다산 사상의 음악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58	엄국화	정약용(丁若鏞)의 소사학(昭事學)에 대한 연구-추서(推恕)와 회(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59	고명문	정약용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60	정상엽	정약용 도덕이론의 신형묘합적 구조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9년 발표된 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해볼 때, 정약용 관련 논문이 가장 편수가 많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31편의 정약용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해 발표된 전체 한국 실학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중

에서도 특히 정약용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19년에 정약용 관련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포함하여 총 6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경학에 대한 논문이 총 22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철학 분야에 20편, 정치경제의 분야에 14편, 기타 분류의 논문이 4편이 발표되었다. 다산의 경학 관련 논문 중에는 이전연도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사서(四書) 주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상서(尙書)』와 『시경(侍耕)』 및 예학(禮學)에 관한 연구논문 수도 늘고 있어 다산 경학 연구 범주의 확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산 경학과 관련된 논문 중 주목해볼 만한 논문으로 안승우의 「예(禮)의 관점에서 본 다산(茶山)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이 있다. 다산이 예(禮)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역』을 이용하였음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안승우는 이와 반대로 다산이 주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 예(禮)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정약용 관련 철학 논문 중에서는 윤리·도덕과 관련된 논문이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5편의 다산 관련 박사학위논문 중 2편이 다산 사상의 윤리론에 관한 내용이며, 전체 다산 관련 철학 논문 20편 중에서 6편이 다산의 사상을 윤리·도덕과 연결하였다. 이렇게 꾸준히 윤리·도덕과 관련된 다산 논문이 발표되지만 아쉬운 점은 학술적인 발견 혹은 다산 사상의 재해석과 같은 의의 있는 논문은 적다는 것이다. 한 예로 최정락의 「다산 정약용의 도덕실천론 연구-인간과 상제의 감응을 중심으로」의 경우, 다산의 도덕실천 바탕을 상제로부터 받은 영명한 마음에서 찾는데 기존 다산 연구 성과와 큰 차이가 없다.

5) 최한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용훈	최한기의 기학과 서양 근대천문학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임태홍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국가' 인식 비교-국가의 목적과 중국 및 천하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3	장원석	Cultural Fusion of East and West in Nineteenth-Century Korea : Introduction to and Translation of Ch'oe Han-ki's Prefaces to the Study of Configurative Energy and Effecting Socio-Political Order among Humans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4	김경수	최한기의 대동사상 연구	범한철학 92-1	범한철학회
5	김부찬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의 『기측체의(氣測體義)』에 나타난 기학적 신체수양론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조성산	최한기(崔漢綺)의 신기(神氣) 논의와 중서의학 비판 : 화담학(花潭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사학 28-2	대한의사학회
7	임태홍	도덕과 생존 :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세계관 비교	일본문화연구 71	동아시아 일본학회
8	야규 마코토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教)'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9-3	한국종교학회
9	박미라	최한기 경험주의적 윤리설의 한계와 형이상학적 정당화	철학·사상·문화 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0	박미라	최한기 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한기에 관한 논문은 2018년 11편, 2017년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에는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한기는 자신의 철학을 기학(氣學)이라 명명하며 운화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실학자이다. 다른 실학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주장 때문인지, 지금까지 최한기에 관한 연구논문은 모두 그의 기학(氣學)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최한기 관련 연구성과에서는 최한기의 기학에서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반면 2019년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다루는 연구주제가 이전보다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미라의 「최한기 경험주의적 윤리설의 한계와 형이상학적 정당화」는 최한기의 기학을 그의 윤리학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박미라의 논문은 최한기의 철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박미라는 최한기는 전기에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였지만 윤리학 성립에 한계를 느껴 후기에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정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임태홍의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국가' 인식 비교-국가의 목적과 중국 및 천하관을 중심으로-」과 김경수의 「최한기의 대동사상 연구」는 모두 최한기의 국가관에 주목한 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유교경전(『대학』, 『예기』)에 등장하는 유가의 국가관과 최한기의 국가관을 비교하며, 최한기의 국가관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야규 마코토의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敎)'개념을 중심으로-」는 최한기에 관한 기존 논문과 달리 최한기의 '기학'을 회통사상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가 종교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회통적 보편윤리의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심규식	沈大允의 私撰兵書『大順新書』소개 : 재야 지식인의 군사지식과 그 한계점에 대한 小考를 겸하여	규장각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2	손혜리	成大中의 實用에 대한 認識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배기호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과 실학정신(實學精神)	시대와 철학 30-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	김재화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	이헌창	조선왕조의 정책사와 근세 실학, 그리고 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6	임재규	白湖 尹鑴의 『讀書記. 中庸』에 나타난 '畏天'과 '恐懼'의 종교적 함의-루돌프 옷토(Rudolf Otto)의 '위압성(majestas)'과 '두려움(tremendum)'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7	김세호	조선 후기 정치사회상과 농암 류수원의 인재등용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8	유현재	『우서』에 나타난 화폐유통론의 성격-화폐와 상점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9	이선아	18세기 소론탕평 정국과 류수원의 정치적 역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10	최석기	白湖 尹鑴의 중용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40	우리한문학회

2019년 발표된 기타 인물에 관한 실학 논문은 총 10편이다. 앞서 분석한 주요 실학자들보다 연구논문 수는 적지만, 심대윤, 김육, 유수원, 신경준 등의 실학자들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타 인물 연구의 특성 중 하나는 정치·경제에 관한 주제 논문이 다수라는 점이다. 2019년에 발표된 기타 인물에 대한 논문 중 6편이 정치·경제 관련 논문이었다.

손혜리의 「成大中의 實用에 대한 認識과 經世學」는 성대중 경세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규식의 「沈大允의 私撰兵書 『大順新書』 소개: 재야지식인의 군사지식과 그 한계점에 대한 小考를 겸하여」는 심대윤의 軍政 개혁안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세호의 「조선 후기 정치사회상과 농암 류수원의 인재등용론」, 유현재

의 「『우서』에 나타난 화폐유통론의 성격-화폐와 상점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선아의 「18세기 소론탕평 정국과 류수원의 정치적 역할」는 류수원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헌창의 「조선왕조의 정책사와 근세 실학, 그리고 金堉(1580-1658)」은 김육의 정책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김육이 유형원으로 이어지는 실학 학파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3. 주제별 분류

1) 경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헌규	『논어』의義·利와그註釋에대한일고찰-新·古注와 茶山 丁若鏞의주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2	방인	다산 역학에서 우연성 결정론 자유의지의 문제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3	르엉 미 번	정약용의 『상서尙書』, 「홍범洪範」 편 이해	다산학 34	다산학술문화재단
4	장위에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관점에서 본 다산의 『주역周易』 사상	다산학 34	다산학술문화재단
5	리밍 훼이	從丁茶山對孟子心性論的詮釋看其四端七情論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6	리창란	茶山《孟子要義》身体观, 政治学架构和引据资料三题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7	방인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우주발생론적 관념과 마테오 리치의 영향-창조론과 생성론의 절충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8	차이 전펑	由《孟子要義》論丁茶山對朱子學的重新定位	다산학 35	다산학술문화재단
9	홍유빈	茶山·舫山 詩經說이 지닌 복고적 성격과 그 경학사적 의미 -「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10	이난숙	정약용과 주희, 소옹의 『주역』 數理說의 상관적 특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11	김경희	『孟子』 "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12	김병애	「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13	박찬호	茶山의 鬼神論에 대한 고찰-『中庸講義補』·『中庸自箴』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4	동양한문학회
14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II)-秋史 金正喜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3	한국고전번역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윤석호	丁若鏞 鄕遂論의 추이와 그 함의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	안승우	예(禮)의 관점에서 본 다산(茶山)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17	심순옥	정조와 다산 경학연구의 이론적 차이 고찰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19	이난숙	정약용의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 고찰 Ⅰ	율곡학연구 40	율곡학회
20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禮개념 주석에 대한 일고찰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21	이해임 허남진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성선설(性善說)-다산(茶山)의 『맹자(孟子)』해석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2	차서연	상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丁若鏞)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상(喪服商)」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3	신재식	조선후기 考證學과 閻若璩	퇴계학논총 33	퇴계학부산연구원
24	정해왕	朱熹와 王守仁과 丁若鏞의 [大學] 해석 비교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5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箋)』 「시괘전(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26	최석기	白湖 尹鑴의 중용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40	우리한문학회
27	김조영	丁茶山의 『孟子要義』訓詁 硏究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9년 경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27편이다. 해당 주제의 논문이 2017년에 7편, 2018년에는 13편 발표되었는데 이로써 실학자의 경학 연구가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인물별로 살펴보면, 정약용의 경학과 관련된 논문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 경전을 기준으로 발표논문들을 구분해보면, 전체논문 중 『주역』 관련 논문이 총 9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역』 다음으로

는 『맹자』 관련 총 6편, 『대학』·『중용』·『논어』·『시경』·『상서』가 각각 2편, 예학이 1편이며, 종합적으로 검토된 연구논문이 2편 있다. 2019년 발표된 경학 주제 논문 가운데 염약거와 관련된 신재식의 「조선후기 考證學과 閻若璩」가 주목할만하다. 신재식은 논문에서 염약거의 저술이 조선 사회에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고, 청대의 고증학과 조선 후기의 실학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였다.

2) 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락	다산 정약용의 도덕실천론 연구-인간과 상제의 감응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	엄국화	'서(恕)' 해석의 발전과정과 기독교 윤리에 관한 고찰-정약용의 추서(推恕)와 관련하여	기독교사회윤리 45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
3	김선희	인체 이론과 심 이론의 통합과 분리-『의령』에서 『맹자요의』까지 서학을 통한 다산의 인간 이해의 변화	다산학 34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임부연	정약용의 영체학靈體學과 맹자 심학心學의 재해석-도심道心의 행사行事를 중심으로	다산학 35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5	정재현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와 관련해서 본 다산 철학	다산학 35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	전용훈	최한기의 기학과 서양 근대천문학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7	민수연	정약용의 격치육조론(格致六條論)	도덕교육연구 31-2	한국도덕교육학회
8	이기원	다산학에서의 예법과 인간-『소학지언』과 『심경밀험』을 중심으로-	동방학 4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9	김은영	'인물성동론'에서 '인물동론'으로-연암 인물성동론의 재조명-	동방학지 186	국학연구원
10	고남식	茶山 實學사상과 조선말기 姜甑山사상의 비교-실학적 전통회귀와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3	동아시아고대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이규완	3원적 사유구조-원효 『기신론』 주석과 이익의 『사칠신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3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2	박진아	18세기 조선, 錦帶 李家煥 서학 수용의 인식론적 기반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13	이종우	Zhu Xi's Perspective on Origin of Evil and Jeong Yakyong's Criticism of the Theory	동양문화연구 31	동양문화연구원
14	고승환	정약용의 철학에서 인간사에 개입하는 '상제' 분석-개인 윤리와 정치 영역과 관련해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15	임부연	다산 정약용의 '천리(天理)' 관념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	김경수	최한기의 대동사상 연구	범한철학 92-1	범한철학회
17	박찬호	다산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18	전성건	하곡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19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사칠동이변(四七同異辯)』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20	양양	戴震與丁若鏞的人性論比較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78	한국유교학회
21	야규 마코토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敎)'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9-3	한국종교학회
22	곽혜성	담헌 홍대용의 탈성리학적 사상의 형성-理氣心性論에 따른 物의 談論 변화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3	박미라	최한기 경험주의적 윤리설의 한계와 형이상학적 정당화	철학·사상·문화 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4	김재화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5	임재규	白湖 尹鑴의 『讀書記. 中庸』에 나타난 '畏天'과 '恐懼'의 종교적 함의-루돌프 옷토(Rudolf Otto)의 '위압성(majestas)'과 '두려움(tremendum)'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6	정일균	茶山 丁若鏞의 '知識'論에 대한 一考察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7	고명문	정약용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8	정상엽	정약용 도덕이론의 신형묘합적 구조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9	김은영	연암 박지원의 후생(厚生)철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0	박미라	최한기 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년 발표된 철학 관련 주제의 한국실학 논문은 총 32편이다. 이 중에는 이규완의 「3원적 사유구조-원효 『기신론』 주석과 이익의 『사칠신편』을 중심으로」, 임부연의 「정약용의 영체학靈體學과 맹자 심학心學의 재해석-도심道心의 행사行事를 중심으로」, 서근식의 「하빈(河濱)·신후담(愼後聃)의 『사칠동이변(四七同異辯)』에 관한 연구」처럼 인심·도심, 사단칠정론과 같은 한국 성리학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논문도 있다. 그리고 격물치지 문제를 다루는 김재화의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 민수연의 「정약용의 격치육조론(格致六條論)」도 있어 일반 성리학의 인식론 또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논문들을 살펴보면, 2019년 발표된 철학 관련 한국실학 논문 대부분 윤리학 혹은 인성론(人性論)과 관련된 논문이다.

2019년의 연구성과들은 한국실학의 인성론과 윤리학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우선 김은영의 「'인물성동론'에서 '인물동론'으로-연암 인물성동론의 재조명-」과 곽혜성의 「담헌 홍대용의 탈성리학적 사상의 형성-理氣心性論에 따른 物의 談論 변화를 중심으로-」가 북학파의 인성론을 연구하였다. 또한 박찬호의 「다산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과 고명문의 「정약용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재구성」과 같은 정약용의 인성론 및 윤리학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또, 정재현의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와 관련해서 본 다산 철학」처럼 현대 이슈들과 다산의 인성론을 연결하는 시도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3) 정치경제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심의용	홍대용(洪大容)의 天涯知己와 근대성 고찰	인문사회21. 32	아시아문화학술원
2	심규식	沈大允의 私撰兵書『大順新書』소개-재야지식인의 군사지식과 그 한계점에 대한 小考를 겸하여	규장각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손혜리	成大中의 實用에 대한 認識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임헌규	공자의 정치이념-다산 정약용의 '정명' 해석	동방학 4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5	최윤오	다산 정약용의 土地公槪念과 閭田制	동방학지 18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	조창록	徐命膺의 농업·일용 관련 저술과『林園經濟志』로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회 78	동방한문학회
7	임태홍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국가' 인식 비교-국가의 목적과 중국 및 천하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8	임명걸	영재(泠齋) 유득공(柳得恭)의 해양(해양국가)에 대한 인식 연구	민족문화연구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9	박병철 주인석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개혁정치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13-2	한국민족사상학회
10	박소현	『欽欽新書』와 법의 서술-『欽欽新書·批詳雋抄』의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사림 69	수선사학회
11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史叢 9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2	김태환	민주공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茶山 丁若鏞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13	김태영	정약용의 천주교 수용과 개혁 사상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14	박상휘	조선후기 비왜론의 전개양상	열상고전연구 67	열상고전연구회
15	박광철	다산 상제관의 경세론적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6	한국유교학회
16	르엉 미 번	정치는 무위(無爲)인가 유위(有爲)인가?-정약용과 레뀌돈의 관점 비교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7	장복동	정약용의 복수의 윤리-법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윤석호	丁若鏞의 三代 田賦論-三代 '二元的 田賦論'의 논정 과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19	김경수	다산 정약용의 민권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철학사상 7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	김형빈, 이승원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협치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4-3	한국부패학회
21	이동화	18세기 전반 이익(李瀷)의 붕당론과 정치질서 구상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22	박인호	『반계수록』〈고설〉을 통해 본 유형원의 실학적 경세사관	韓國史學史學報 40	한국사학사학회
23	조성을	정약용의 역사의식과 개혁사상	韓國史學史學報 40	한국사학사학회
24	이헌창	조선왕조의 정책사와 근세 실학, 그리고 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5	김세호	조선 후기 정치사회상과 농암 류수원의 인재등용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26	유현재	『우서』에 나타난 화폐유통론의 성격-화폐와 상점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27	이선아	18세기 소론탕평 정국과 류수원의 정치적 역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2019년 정치경제와 관련된 실학 연구논문은 모두 27편이다. 이 중 정약용과 관련된 논문이 총 13편으로 가장 많고, 류수원 관련 논문이 3편, 유형원 관련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2019년 실학 내 정치경제 분야는 정약용의 경세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정약용의 일표이서(一表二書)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한 서학(西學), 정조 등이 정약용의 정치경제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양상과 그 의미-李德懋와 俞漢雋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	김정현	유가의 마음치유술과 그 현대적 의미-다산 정약용의 『심경밀험』(心經密驗)을 중심으로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3	송수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나타난 배움의 의미 검토	교육사상연구 33-2	한국교육사상학회
4	조지형	안정복安鼎福의 「천학문답天學問答」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反西學的 인식의 확산—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5	최식	『熱河日記』에 비친 홍대용의 그림자	대동한문학 59	대동한문학회
6	장호성	李瀷의 『百諺解』 연구-새로 발견된 자료를 中心으로 原形 復元을 시도하며-	동방한문학회 79	동방한문학회
7	최식	洪大容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동방한문학회 79	동방한문학회
8	한종완	≪유림외사≫와 연암소설의 지식인형상 비교	동아인문학 48	동아인문학회
9	도민재	성호 이익(星湖 李瀷)의 「제식(祭式)」을 통해 본 실용적 제례관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10	김현미	유학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중용(中庸)』의 현대적 해석 방향 모색-주희(朱熹)와 정약용(丁若鏞)의 해석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11	박수밀	燕巖 문학 연구의 새로운 향방	동양한문학연구 53	동양한문학회
12	장원석	Cultural Fusion of East and West in Nineteenth-Century Korea : Introduction to and Translation of Ch'oe Han-ki's Prefaces to the Study of Configurative Energy and Effecting Socio-Political Order among Humans	문화와 융합 41-1	한국문화융합학회
13	김선희	조선 후기 유서(類書)와 서학(西學)-『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배기호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과 실학정신(實學精神)	시대와 철학 30-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5	함영대	성호학파와 양명학의 접점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전성건	천학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응 양상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17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18	최종성	서유구의 양전법의 수학적 고찰-구일집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0	역사실학회
19	홍성민	유배(流配)에서 자적(自適)으로-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무아의 경계-	유교사상문화연구77	한국유교학회
20	김부찬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의 『기측체의(氣測體義)』에 나타난 기학적 신체수양론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조성산	최한기(崔漢綺)의 신기(神氣) 논의와 중서의학 비판 : 화담학(花潭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사학 28-2	대한의사학회
22	임태홍	도덕과 생존 :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세계관 비교	일본문화연구 71	동아시아일본학회
23	왕초(王超)	河濱愼後聃對老莊之評價-以『八家總評·道家類』爲中心	중국학보 87	한국중국학회
24	김일환	콘텐츠로서의 북학파(北學派)	韓國古典研究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5	신주현	정약종(丁若鍾)의 『쥬교요지』에서 불교 비판 담론이 갖는 사상사적 함의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6	강지은	조선시대 '실학' 개념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75	고려사학회
27	정구복	조선후기 성리학 이념과 실학의 제 문제	韓國史學史學報 40	한국사학사학회
28	김문식	星湖 李瀷의 역사 만들기-李孟休 저작의 소개와 활용-	한국사학사학보 40	한국사학사학회
29	김영욱	정약용의 구고원류	한국수학사학회지32-3	한국수학사학회
30	최식	『熱河日記』와 法古刱新의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31	구만옥	貞山 李秉休(1710-1776)의 학문관과 천문역산학 담론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32	임형택	실학적 지식과 저술의 형태-『迂書』·『雜同散異』·『林園經濟志』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33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의 오성(五聲) 및 악기론의 음악적 및 수리적 결함	한국음악연구 65	한국국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4	지준호	다산 정약용의 도덕교육론-도덕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한국철학사 연구회
35	김형호	『星湖僿說』과 明·淸代 인용 문헌과 그 의미	漢文學報 41	우리한문학회
36	윤해린	다산 사상의 음악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37	엄국화	정약용(丁若鏞)의 소사학(昭事學)에 대한 연구:추서(推恕)와 회(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9년 기타주제와 관련된 한국 실학 연구논문은 모두 37편이다. 전체적인 한국 실학 논문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타주제의 논문 편수 또한 그 이전 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연구성과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을지라도 세부 주제에 있어서는 그 이전 연구 성과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서양 근대학문의 수용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한국 실학 연구의 주요 주제였다. 2019년에도 실학자들이 서양의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수용하였고 또 얼마만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밝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마찬가지로 개별 실학자의 실학정신을 다루는 논문, 실학자 저술을 서지학적·지성사적으로 고찰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실학의 문학론과 예술론 연구 또한 이어졌으며, 박지원과 정약용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실학의 개념 분석 또한 이전부터 이어져 온 연구주제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2019년에 발표된 강지은의 「조선시대 '실학' 개념에 대한 고찰」, 정구복의 「조선후기 성리학 이념과 실학의 제 문제」, 김윤경의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등 총 3편의 논문이 실학 개념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3편의 논문은 모두 '실학'의 출발점과 개념 정의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실학 개념에 대해

분석하는 논문이 여전히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학 개념이 여전히 한국철학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로도 실학개념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으로 2019년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9년 한국 실학에 관한 연구 경향에서 나타난 특징 두 가지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 논문을 분석·비평하였다.

1) 외국 학자의 한국 실학 분석

2019년에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외국 학자의 국내 학술지 논문 편수가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외국 학자가 발표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각각 5편 내외에 불과하였다. 2019년에는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리밍훼이 1편, 리창란 1편, 르엉 미 번 2편, 야규 마코토 1편, 양양 1편, 왕초 1편, 임명걸 1편, 장위에 1편, 차이전펑 1편. 이름표기는 논문 상의 표기를 따름) 대부분 중국계 학자들이며 다산 정약용에 대한 논문이 많았다. 본 장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한국 실학 인식이 나타나는 주요 논문 2편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① 야규 마코토,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教)'개념을 중심으로-」

야규 마코토(柳生 眞)는 2009년에 강원대 철학과에서 최한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일본인 학자이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야규 마코토는 국내 학계에 최한기의 사상과 근대 일본·한국에서의 공공성 개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왔다. 2019년에 발표한 「최한기의 종교

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敎)'개념을 중심으로-」에서 야규 마코토는 이전 최한기 연구논문과는 다르게 최한기의 사상을 한국 전통의 회통사상과 관련짓는 시도를 하였다.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敎)'개념을 중심으로-」에서 신라의 풍류도, 원효의 화쟁회통 사상 및 근대 전통종교(동학, 증산교, 원불교)의 회통사상과 같은 회통사상 맥락에서 최한기의 사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최한기의 기학(氣學)에서 기(氣)는 운화(運化)하며 인간, 사회, 세계를 유기체적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사람은 추측(推測)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 기학 가운데에서 통(通)/불통(不通)과 교(敎) 개념에 주목하였다.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의 기학의 유기체적 체계가 인간 개체에서 집안〔家〕, 나라〔國〕, 가르침〔敎〕의 범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야규 마코토는 또한 최한기의 가르침〔敎〕을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와 같은 종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한기가 세계 각 문화권에는 나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야규 마코토는 이를 바탕으로 최한기가 세계를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 최한기 기학에서 통(通)/불통(不通)은 기(氣)의 흐름이 두루 통함/치우쳐 막히는 것으로, 불통(不通)은 곧 병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 개체에게 있어서 불통(不通)은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이나 지적 부조(不調)를 나타내며, 집안, 국가에 있어서 불통(不通)은 자신의 것만 편애하며 타인은 비방하는 병폐를 뜻한다.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가 '가르침'에도 불통이 발생한다는 점을 세계종교 간의 대립 갈등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야규 마코토는 최한기가 '천하만세에 통틀어서 행해지는 가르침'을 주장한 것을 세계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시도〔和三歸一〕를 한 것으로 해석하

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최한기의 사상을 한국 전통 사상의 회통의 계보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규 마코토의 위 논문은 기존 최한기 연구논문과 확연히 구별된다. 기존의 최한기 연구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한기 기학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로 기학의 인식론, 존재론, 도덕론 등을 다룬 논문이 있다. 다른 하나는 최한기의 근대성 문제에 관한 연구로 최한기가 서양 근대 학문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혹은 최한기 사상이 한국 근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논문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최한기를 성리학을 비판하며 기존 성리학적 인식을 탈피한 인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최한기에 대한 기존 논문 중에서 최한기의 사상을 기존 한국 사상과 연결 짓는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야규 마코토의 위 논문은 최한기 기학의 인식론 등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최한기 사상과 한국 전통의 회통적 사고와의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 논문과 다른 점으로 최한기 연구에 있어 의의가 있다.

최한기 연구에 대한 학술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규 마코토의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신기통』의 '통교(通教)'개념을 중심으로-」은 다소 아쉬운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회통사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저자는 유도(儒道)·서법(西法)·불교를 '화삼귀일和三歸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한기를 회통 사상의 계보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의 풍류도, 원효의 화쟁회통, 동학(東學)의 '도즉동야(道則同也)', 천도교·증산종교·원불교의 만교귀일 사상을 회통 사상의 계보로 설정한다. 논문을 살펴보면, 결국 회통 사상이란 서로 다른 사상일지라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

이다. 또한 저자는 서론에서 불교의 화쟁이 아닌 회통에서 최한기의 사상적 계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로 아우른다는 모호한 범주를 제외하고 저자는 회통사상에 대해 전일(全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가르침〔敎〕'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자는 논문에서 '가르침'을 종교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또한 교(敎)와 동일한 용어로 교법(敎法), 사도(師道)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한기는 사도(師道)가 기화(氣化)에 근거한다고 보았고,[2] 저자는 최한기가 말하는 교(敎)가 불통하는 상태에는 윤리·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최한기의 교(敎) 개념은 교화를 위한 도덕적 기준·법도 등으로도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종교적 개념으로 해석할 때 다소 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한국 전통의 회통사상이 현대사회의 종교간 갈등과 이념 대립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비판점에서 언급하였듯이, 회통사상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또한 현대 종교 사상 중에서는 한스 큉(Hans Küng, 1928–)처럼 종교간 세계 보편윤리를 주장하는 사상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최한기의 '화삼귀일和三歸一' 주장을 한국 전통의 회통 사상으로 재조명한 야규 마코토의 논문은 최한기 연구에 있어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통 사상과 최한기의 사상을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다소 논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

2 『人政』卷八,「敎人門」: "師道之府藏, 乃天地氣化也."

② 르엉 미 번, 「정약용의 『상서尙書』, 「홍범洪範」 편 이해」

르엉 미 번(Luong My Van)은 2018년 충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베트남 유학자인 레뀌돈과 조선 유학자 정약용을 비교하는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베트남 학자이다. 저자는 국내에 총 3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만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약용의 『상서(尙書)』, 「홍범(洪範)」편 이해」는 저자의 논문 중 유일하게 한국 실학자인 정약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이다.

르엉 미 번의 위 논문은 정약용이 『상서』 「홍범」편을 해석한 데서 다산의 정치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위 논문은 다산의 「홍범」 구주(九疇) 해석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산 이전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은 한 대(漢代) 상수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대 여러 학자들이 홍범구주를 낙서(洛書) 등과 연결시키고 이를 상수(象數)·참위(讖緯)와 관련지었다. 다산은 이러한 홍범구주 해석에 반대하고, 구주(九疇)와 정전(井田)의 아홉구역을 대비시키고 제5주인 황극(皇極)을 정전(井田)의 가장 가운데 구역에 놓는 새로운 구주도(九疇圖)를 창작하였다. 다산은 황극이 가장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임금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정치구조의 중심에 있다고 하였다. 르엉 미 번은 정약용의 이러한 홍범구주 해석에 대해 다산이 최고권력으로서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모순적이지만, 다산의 정치사상이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다산이 주장하는 정치구도에서 임금의 지위가 최고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백성이라 설명하였다. 저자는 다산의 왕권(王權) 해석이 비록 시대 상황을 벗어날 수

는 없었지만, 전제정과 같은 보수적·봉건적 사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논문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조선 시대 학자들의 황극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상수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황극을 포함하는 홍범구주를 비(非)상수학적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던 다산의 해석은 조선조 황극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산의 홍범구주 해석에 대한 논문은 편수가 적은데, 이는 다산의 홍범 설명이 소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르엉 미번은 다산의 '구주도'가 하우(夏禹)의 법칙과 정전(井田)의 아홉 영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원전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논문과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약용의 군주론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소개한 바 있다. 위 논문의 저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정약용 당시 제기되었던 侯戴論·下而上 등 정치이론이 필연적으로 다산의 정치사상과 비교될 것임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다산 군주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 다산 당시 군주권에 대한 시대의 인식과 동시대의 군주권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산이 생각하기에, 당대는 신권이 왕권을 압도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신하들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다산의 군주론이 전제왕정을 옹호하는 것이란 오해를 피하기위해, 다산 정치사상에서 임금의 권위가 높긴 하지만 이 또한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은 다산 정치사상이 가지는 당대적 의의와 현대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소개하는 시대배경이나 평가 등이 소략하고, 근거로 제시하는 다산의 주장

또한 세밀하지는 못하여 논증에 아쉬움이 있다.

2) 성호학파의 사상적 흐름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에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정약용은 조선의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의론을 세운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 입론들에 대한 사상적 배경이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가 선배들의 문집에 대한 독해를 강조했다는 점[3]을 근거로 성호학파의 사상 및 경학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이루어진 한국 실학 관련 연구 가운데, 성호학파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호학파 관련 논문 2편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①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성호우파(星湖右派)로 분류되는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의 『대학후설』을 분석한 글이다. 본문은 크게 ⓐ 『대학후설』의 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선(至善), 명덕(明德)과 성의(誠意)에 대한 주석 분석으로 구성되어, 『대학후설』의 체제와 내용을 고루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대학후설』을 주

3 『與猶堂全書』 卷二十一, 「寄二兒 [壬戌十二月廿二日 , 康津謫中] 」: "數十年來, 怪有一種議論, 盛斥東方文學, 凡先獻文集, 至不欲寓目, 此大病痛. 士大夫子弟, 不識國朝故事, 不見先輩議論, 雖其學貫穿今古, 自是鹵莽."

희의 『대학장구(大學章句)』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義)』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학후설』의 산실 가능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4]

먼저 『대학후설』의 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분석해보자. 이 논문에서는 『고본대학(古本大學)』과 『대학장구』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신후담이 『고본대학』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체제는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선 시대 『대학』 주석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체제와 내용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해왔다. 즉 체제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 『대학장구』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유형, ⓑ 『대학장구』를 저본으로 삼으면서 순서를 수정한 유형, ⓒ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으면서 순서를 수정한 유형, ⓓ 『고본대학(古本大學)』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5]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성리학적 『대학』 이해를 따르느냐가 기준이 되면서,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 두 기준이 작용하면서, 때로는 『대학장구』를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격물치지보망장」을 인정하지 않는 독특한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사변록(思辨錄)』이다.[6] 이렇게 본다면, 『대학후설』은 『사변록』과 유사한 유형이며, 신후담의 『고본대학』을 정론으로 삼겠다

4 서근식,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 Vol.39, 2019, 168-169쪽

5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재에 대한 이해(1)」, 『유교사상문화연구』, Vol.43, 2011, 166쪽

6 또한 김유곤에 따르면 『고본대학』의 체제를 수정한 유형과 『대학장구』의 체제를 수정한 유형 모두 대체로 「격물치지보망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의 논문, 171쪽

는 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격물치지보망장」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실제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박세당이 성리학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당시에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에도 박세당의 경학이 성리학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던 연구 결과들을 참조한다면, 『대학후설』이 『대학장구』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저자는 신후담의 지선과 명덕에 대한 이해는 성리학적 지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성의를 중심으로 『대학』을 해석함으로써 성리학에 비하여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나아가 저자는 이러한 실천에 대한 강조가 정약용에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학공의』의 실천지향적인 성격은 명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신후담과 정약용의 성의에 대한 이해를 비교 분석하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의 실천지향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② 박진아, 「18세기 조선, 錦帶 李家煥 서학 수용의 인식론적 기반」

박진아의 논문은 이가환이 치인(治人)이라는 측면에서는 서학을 수용하고 있지만, 수기(修己)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학이 중심을 논증한다. 그는 이익(李瀷, 1681-1763)에 의하여 전수된 박학(博學)과 선진유학을 중시하는 복고적인 성격의 가학(家學)이 서학을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가환은 서양의 천문역산학(天文曆算學)과 도수지학(度數之學)을 수용함으로써 경세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가환은 효

(孝)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윤리를 끝내 져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상에 대한 제례의식을 금지하였던 칙서가 조선에 전해진 이후, 그가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철회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이 과정에서 이가환의 효를 중심으로 한 윤리가 정약용의 인(仁)에 대한 학설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필자는 이가환이 '상제(上帝)'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소이연(所以然)'을 상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유학의 상제관에 주목함으로써 유가의 실천적 윤리를 강화시키고자 한 점에서, 퇴계에서 미수 그리고 성호에서 다시 다산으로 이어지는, '유가의 종교성'에 착목한 사상적 계보 내에서 금대를 그 가교의 역할로 위치지울 수 있을 것"[7]이라는 결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필자는 '유가의 종교성'을 언급하면서 서론과 결론에서는 이황(李滉, 1501-1570)으로부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명하지만, 본론에서는 허목(許穆, 1595-1682)으로부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사천학(事天學)으로 설명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이황의 리(理)를 활물(活物)로 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종교성과 정약용의 상제를 중심으로 한 종교성을 동질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8]

7 박진아, 「18세기 조선, 錦帶 李家煥 서학 수용의 인식론적 기반」, 『동양고전연구』, Vol.75, 2019, 451쪽

8 이광호, 「李退溪의 哲學思想이 丁茶山의 經學思想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퇴계학보』, Vol.90, 1996 참조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2019년도 한 해 동안 한국 학계에서 발표한 한국 실학 연구 성과를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논문을 분석하였다. 2019년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15편과 박사 학위논문 7편으로, 총 122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2017년 58편, 2018년 96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에는 122편의 논문이 출판되어 한국 실학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물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유형원에 대한 논문이 2편, 성호학파 관련 14편, 북학파 관련 17편, 정약용 관련 60편, 최한기 관련 10편, 기타 인물에 대한 논문이 10편이 발표되었다. 유형원 관련 논문 편수는 줄었지만, 다른 인물 및 학파에 관한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었다. 성호학파(중농학파) 관련 논문은 그 편수가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전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학파(중상학파) 관련 논문 또한 그 편수가 증가하였으며 인물이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북학파인 박지원 관련 논문의 경우 박지원의 문학관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았는데, 2019년에는 그의 문학작품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한기에 대한 연구성과도 2018년에 이어 1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단순히 최한기 기학(氣學)의 개념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를 기학의 국가관, 신체관 등으로 확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최한기에 관한 연구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심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인물에 대한 논문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으며, 해당 논문들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정치·경제론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저자들은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정치·경제론을 소개함으로써, 조선 후기가 정체된 시기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매년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전체 가운데서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9년에도 여전히 정약용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전체 한국 실학 논문 중 절반 이상이 정약용 관련 논문이었다. 하지만 비록 다양한 인물들로 한국 실학 연구의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는 있지만, 정약용에 대한 연구 쏠림현상은 분명 학계의 주의가 촉구된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경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27편, 철학 관련 주제의 논문은 총 32편, 정치경제와 관련된 실학 연구논문은 모두 27편, 기타주제의 논문은 총37편 발표되었다. 한국 실학 관련 연구에서 인물로는 정약용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주제별로는 논문 편수가 다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물론 정약용에 대한 연구 논문 수가 많아서, 모든 주제에서 정약용 관련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학 분야의 경우 그 이전연도보다 연구대상이 되는 경전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전체 27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정약용의 경학과 관련된 논문이 22편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학 관련 논문 주제가 다양화된 것은 정약용 경학 연구가 다양화된 데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정약용 경학에 관한 연구가 기존 사서(四書) 중심에서 『주역』, 『시경』, 예서(禮書) 등의 경전으로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자연히 한국 실학의 경학 연구 또한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실

학의 경학 연구에 있어 인물 다각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철학 분야의 경우, 2018년에 이어서 인심·도심론, 사단칠정론과 같이 한국 성리학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계속해서 발행되었다. 2019년의 철학 분야 연구성과들은 이전보다 한국실학의 인성론과 윤리학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재화의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 민수연의 「정약용의 격치육조론(格致六條論)처럼 격물치지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그동안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대개 호학과 낙학 인물에만 한정되었던 반면에 2019년에는 홍대용, 박지원 등의 실학자의 인물성동이 문제를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치경제 분야의 경우, 정약용과 관련된 논문 편수가 총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인물들의 정치경제 사상을 다루는 논문들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실학 내 정치경제 분야는 정약용의 경세론에 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약용의 일표이서(一表二書)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며, 서학(西學), 정조 등의 사상·인물이 정약용의 정치경제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기타 주제의 경우, 다른 주제보다 가장 편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전연도보다 연구논문 편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양적으로는 연구성과가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근대 서양 학문의 수용 과정, 개별 실학자의 실학 정신 등으로 기존의 기타 실학 연구주제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실학의 개념 분석에 대한 논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지은의 「조선시대 '실학' 개념에 대한 고찰」, 정구복의 「조선후기 성리학 이념과 실학의 제 문제」, 김윤경의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

의」 등 총 3편의 논문이 실학 개념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처럼 실학 개념에 대해 분석하는 논문이 여전히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학 개념이 여전히 한국철학계의 문제임을 보여주며, 실학 개념에 대한 연구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